

6월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3071.70	↓ 코스닥	781.50
	(+15.76)		(-0.06)
↓ 금리 (국고채 9년)	2.452	↓ 환율	1352.60
	(-0.001)		(-4.80)



우주용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전자업계, 우주산업 진출 본격화

LG, 2032년 달 착륙 목표
탐사로봇 테스트 사례 소개

삼성, 위성통신 기능 집중
우주용 반도체 실증 등 병행

국내 전자업계가 우주산업을 향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4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우주항공청(KASA)과 간담회를 열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 사업 전략을 공식화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UEL)와 공동 개발 중인 달 탐사로봇(로버) 주행 테스트 사례도 소개했다. 로버는 달과 행성 표면을 이동하며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



챗GPT로 생성한 ‘우주산업 도전’ 이미지.

인 차량이다.

이 로버에는 ▲LG전자의 자율주행 제어 기술 ▲LG이노텍의 정밀 광학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우주용 배터리 등이 적용됐다. 특히 LG이노텍은 향후 로버에 자체 개발 중인 우주 탐사용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실시된 실증 테스트에선 이노텍의 시제품 카메라가 장착돼 성능 검증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6년 NASA의 우주복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식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주비행사의 생명 유지용 산소 공급 장치, 통신 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에 탑재된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십’ 발사체에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 공급도 수주하며 우주 배터리 관련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LG는 오는 11월과 내년 예정된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4·5차 발사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지원, 우주 환경 시나리오 분석 등 사업 모델 다각화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위성통신 기능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X80 5G 모델 기반의 ‘스냅드래곤 새틀라이

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이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 SMS 송수신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주용 반도체 실증과 인프라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함께 NASA의 아르테미스 II 임무에 투입될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자사 반도체 칩을 해당 위성에 탑재해 우주 방사선 내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25년 4300억 달러(약 560조 원) 규모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4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반도체, 배터리, 정밀 센서 같은 첨단 부품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향후 우주 생태계에서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상법개정, 지금이 결단할 때”…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제단체〉

與-경제6단체 상법간담회
민주당 코스피 주가상승 기대
경제계, 이사 의무 확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뉴시스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5월 산업생산 1.1% 감소 투자 급감, 소비도 제자리

5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역시 살아나지 못 하고 전월에 비해 보험세를 보였다.

통계청이30일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1.6% 감소했다가 2월(+0.7%)과 3월(+1.1%)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다 4월(-0.8%)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늘어난 반면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줄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1.5%) 등에서 생산

이 늘었으나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생산이 줄어 2.9% 감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의약품,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3.1% 줄어든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최장용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전 산업 생산의 2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해 5~7월 3개월 감소한 이후 처음”이라며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는데 의약품은 일부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단가 낮은 상품들의 생산 비중을 늘린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李, 국정안정 시급 ‘속전속결 조각’… 청문 정국 ‘촉각’ /사진 뉴시스
- ▲국정위 “금주 국정과제 초안 마련… 재정 투자 사업 검토 진행”

- ▲野, 김민석 지명 철회 촉구… “배추 농사·증여세 의혹 눈덩이”
- ▲민주 “국힘, ‘친윤당’ 회귀… 내란·극우세력 벗어나길 거부”

- ▲‘전략·정책통’ 행안장관 후보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 속도 불나
- ▲개혁신당, 올 7월27일 전당대회 열고 신임 지도부 선출